

民主化시대의 大學言論

柳 一 相
(建國大 新聞放送學科)

대학신문의 편향된 논조를 빌미삼아 대학신문을 대학생 신문으로 위상 전환시키려는 당국의 발상은 非敎育的이다. 오히려 대학신문은 현재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사회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언론 매체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신문에 대한 교수들의 지도는 포기될 수 없다. 또한 대학신문 기자들의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위해 言論倫理 교과목의 설강과 지도가 요망된다.

1. 序 論

대학 언론은 대학의 생존을 위하여 그 존재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대학을 하나의 체제로 파악하든 사회 유기체로 간주하든 간에 대학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각종의 언론 활동이 있게 마련이다. 대학이 하나의 체제(system)라고 한다면 대학 언론은 외적 환경인 대학 외부와의 관계를 유지하여 대학을 보다 큰 체제의 한 부분으로 생존하게 하는 상호 작용의 매개물이 되고 나아가 체제를 구성하는 독립적이며 때로는 상호 의존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상호 적응시키고 조정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학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본질을 사회 유기체에 비유한다면 대학 언론은 대학의 한 肢體로서 대학 사회의 구성에 참가하는 여러 가지 유기적 요소의 조화와 균형에 이바지하는 대학의 신경 조직 내지는 대

학 여론의 導水管, 대학 사회의 대동맥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비유법을 사용하여 대학의 본질이나 대학 언론의 실체를 은폐 또는 왜곡시켰다고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대학의 언론 활동들을 분류·정리하고 그 실상에 대해 증언하며 우리들의 사고의 폭과 심도를 늘리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시도도 대학 언론의 淵源, 그 발전 과정과 현재적으로 특화된 대학 언론의 모양새가 그 참모습과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우리들의 先學이나 同學들의 인식 방법에 어떠한 착오가 있었는가 또는 의도적인 은폐나 왜곡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헌들을 통해 살펴건대 대학 언론에 관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주장이나 논의, 토론 및 연구의 대부분이 대학 언론의 본질적인 양면적 특성들 가운데 어느 한 면을 지나치게 강

조하거나 기계적으로 양자의 모순을 제거한 이상적인 大學言論像의 창출이라는 무의미한 작업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 사례가 많은 듯하다. 그 근거로 대학 언론의 대립·모순된 측면 중의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대학 언론의 實體 이해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대학 언론의 像은 대학과 언론의 力動的 자기 발전 과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대학 언론에 관한 논쟁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관찰된다. 하나는 대학의 본질과 언론의 본질을 상호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그중 어느 하나에 비중을 두어 대학 언론을 규정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대학의 본질을 아카데미즘에, 언론의 본질을 저널리즘 쪽에 접근시키고 아카데미즘이나 저널리즘이나를 양자 택일해야 한다는 흑백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대학 언론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하는 다분히 목적론적인 문제의 해답을 자기 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논리들이다. 이런 논리들은 다분히 정치적인 세력 다툼에서 대학 당국과 학생 집단을 내면적으로 은밀하게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학 공동체의 보편적인 共同善을 음해할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다.

前者의 쟁점에서는 대학의 본질과 언론의 본질이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면 대학 언론의 모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동 해소되어 대학 언론이 제자리를 찾을 것처럼 생각한다. 이들에게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조화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前者의 쟁점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대학 언론을 대학과 언론의 집합 모형으로 보기 때문에 관념적 의미에서의 조화와 균형 방법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 後者の 쟁점은 주로 학생 집단에 비해 공권력의 강력한 지원과 막대한 자본력을 배경으로 하여 대학 언론을 장악하려는 교육 관료 집단의 학생 대중에 대한 설득 논리와 그 수용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학생 집단의 대항 논리로 대학 사회를 困繞한 社會 諸勢力의 정치 역량과 사회적 관계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대학과 언론의 단순한 집합이

대학 언론이 된다는 公理와 대학 언론의 주체가 어떤 특정 집단이어야 한다는 命題를 다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학의 이념과 언론의 이념을 뛰어넘어 그 모순을 止揚하며 나타나는 하나의 종합(synthese)인 대학 언론 그 자체의 본질과 위상, 사명과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대학 언론에 대한 올바른 지도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미 발표된 학설이나 이론, 주장이나 논의에 대하여 반론이나 반박을 하거나 그 부당성을 지적하겠지만 결코 이 글의 분석과 비판이 연구자나 발표자, 주창자에 대해 '사람에 관한 논증'을 함으로써 논리적 오류를 범하거나 비과학적인 미신 또는 가당찮은 修辭로 독자들을 설득시키려는 목적이 이당초 전혀 없음을 밝혀 둔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을 천명하면서 우리들의 談論은 대학 언론의 역사적 실체, 대학 언론의 역할 인식에 대한 변화의 역동성과 대학 언론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성격을 모두 관통할 수 있는 一貫된 인식론과 인식 성과에 근거하여 대학신문의 올바른 지도 방향을 끄집어 내게 될 것이다.

2. 大學言論의 出現과 그 發展

1) 大學言論의 出現 背景

대학의 정신적 조사와 탐구, 창작과 평가 등 모든 연구 작업이 전달적·소통적 목적을 갖고 대학 내·외부에 발표된다면, 그 의적 표현물인 모든 성과물은 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대학 언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언론의 궁극적인 개념 척도는 대학 구성원 사이에 보다 많은 異質性을 극복하고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정도의 범위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수 전문 분야의 일정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킬 뿐인 학술 잡지 또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쓰여진 저술이나 논문을 현재로서는 체험적 의미에서 대학 언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더욱 소통적인 목적을 갖고 개념의 인지적 기능과 실용적 기능을 살려 대학 언론이라는 우리들의 논의 대상을 實在的·名目的으로 定義해 놓겠다. 즉 "대학 언론이란 대학의 모든 현장을 비

추는 거울인 동시에 대학의 감각과 의식을 매개하고 대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형성적 영향력을 가진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라고. 그러므로 대학 언론은 대학을 대학답게 감지하게 만드는 기관이요, 유기체요, 체계이며 한편으로는 여하간에 구체적인 실체인 것이다. 동시에 대학 언론은 대학신문, 대학방송, 대학 校誌 등의 구체적인 매체 형식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각종의 정보와 의견을 담는다. 따라서 대학 언론은 추상적 개념의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 실체의 현실을 담보로 하여 대학의 보편적 동기를 위해 복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언론의 출현은 인쇄 매체의 형태로 나타났을 것인 바 一說에 의하면 18세기초 미국에서라고 한다.¹⁾ 현재는 전 세계의 대학에서 대학신문을 비롯한 방송, 교지 등의 형태로 대학 언론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인쇄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언론의 길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 교육기관에 매스 미디어가 보급되고 때로는 교육수단의 하나로 사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상 초·중·고교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현재 국어교육의 보조 수단으로 작문 능력의 향상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 언론은 단지 어문교육의 보조기구 또는 교육 기자재의 차원만으로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넓은 개념 정의가 사물의 본질에 대한 핵심을 놓치게 하는 은폐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물에 대한 시각을 고정시키고 실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왜곡할 수도 있다. 오히려 대학 언론은 특정 사회가 대학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요구 조건에 부응하여 독자적인 위상을 갖고 그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2) 우리나라 大學言論의 前身인 學生言論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언론은 대학신문의 형

태로 京城帝國大學의 日本人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京城帝大의 언론 활동은 그 주체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의 대학 언론사에서는 제외하는 듯하다.²⁾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언론사는 1947년 9월 1일 中央大가 대학신문을 발행하고 高麗大가 곧이어 대학신문을 발행한 뒤, 대학신문이 각 대학에서 중요한 기구의 하나로 자라가고 있는 과정으로 설명되는 것이 定說이다. 正名說을 존중하고 또 名目 尺度를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확실히 대학 언론의 전통은 최근세사를 살피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대학의 실립이 해방 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故意가 없다면 한국 대학 언론의 전통은 근대적 교육 기관의 출범과 더불어 開化가 진행되기 시작했던 조선조 말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順理일 것이다. 말하자면 대학 언론은 대학 제도 정착의 산물이지만 그 원형(origin)은 근대적 교육 제도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언론의 前例는 학교 언론의 새 전통을 열었던 배재학당의 협성회 회보와 매일신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협성회 회보는 서재필이 배재학당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조직하게 한 배재학당 학생회인 협성회의 학생 신문이었다. 이 신문은 학생 신문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구심과 애국심을 북돋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동시에 시대적 소명에 따른 강력한 사회 참여의 일환으로 每部當 葉전 4분씩을 받고 일반 독자들에게 판매하기까지 했던 有價紙였다.

협성회 회보의 창간사를 보면 ‘이전 학문(學問)의 연구에 진력하여 고인의 진담만 강론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인민교육을 통해 국익에 기여하는 人材 양성을 목적으로 창립된 협성회가 愛國之心을 발휘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³⁾ 이러

1) 李伯雨, “大學新聞은 大學의 教育利器— 次元 높은 知性과 研究 반영해야”, 新聞과 放送, Vol. 113(1980. 4), 한국신문연구소, p. 89.
 2) 吳鎮煥, “韓國 大學新聞 學生 編輯長들의 意識形態에 關한 研究”, 新聞學報, 第 5 號, 韓國新聞學會, 1972, p. 6.
 3) 협성회 회보 제 1호(대한광무 이년 일월 일일, 1898.1.1字), ‘론설’란.

한 창간 정신에 따라 협성회 회보는 정치·사회 등에 관한 시사 문제를 보도하고 과격한 정부 비판 논조를 펴며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였다. 이 신문의 지면 구성은 제1면에 논설, 제2면과 3면에 내보와 외보를 실었으며 맨 끝면인 제4면에만 협성회의 소식인 ‘회중잡보’를 실었다. 그러나 이 ‘회중잡보’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을 실어 완전히 일반 종합지의 면모를 갖추었다.⁴⁾ 이 신문이 협성회의 기관지 형식을 띠면서도 일반에 배포될 수 있었던 것은 협성회가 회원을 학생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贊成員’ 제를 두어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협성회는 배재학당 학생만의 자치 조직이 아니라 당시의 진보 세력을 망라한 연대 조직적 색채가 강한 사회 단체인데⁵⁾ 협성회 회보는 이 단체의 여론 조성 활동을 도와 사회 발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한 典型的인 학교 언론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협성회 회보의 사회적 위상과 그 역할·기능 및 심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通史的으로 살펴 교훈을 얻는 것은 오늘의 대학 언론을 역사적·사회적 諸條件 속에 投影시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대학의 성장과 더불어 대학신문만 하더라도 문교부 통계에 따르면 '89년 1학기 현재 전국 122개 대학에서 2백 50만 부 이상 발행되고 있는 현실⁶⁾을 긍정적으로 인정하여 19세기 말엽 협성회 회보가 사회적인 호응에 힘입어 일간지인 매일신문으로 전향적 발전을 한 史例⁷⁾를 계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단계가 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협성회 회보가 매일신문으로 탈

바꿈한 것에 대해 崔竣 교수는 ‘논조가 과격해지는 데 따라 守舊派의 책동으로 高宗이 丙命을 내려 협성회 회보를 폐간시키자 협성회 회원들이 뜻을 굽히지 않고 새 신문인 매일신문을 창간한 것⁸⁾으로 해석하고 있음에 비해, 鄭晉錫 교수는 젊은이들의 정열과 우국 충정에서 논설이 과격하고 재정적 기반이 취약했던 점은 사실이나 ① 매일신문 창간호 논설에서 ‘회원들이 일심 협력하여 재력을 모아 매일신문을 낸다고 공표’한 점과 당시의 유력지인 독립신문도 같은 날 보도를 통해 협성회 회보를 고쳐 매일신문을 출간했다고 밝힌 점, ② 매일신문의 발행 허가가 협성회 회보의 농·상공부 인가 사항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점, ③ 협성 회원이었으며 협성회 제5차 임원인 申興雨가 ‘柳永錫의 적극적인 제의’로 일일신문으로 고쳤다고 증언한 점 등을 들어 협성회 회보에 대한 탄압 폐간설을 부정하고 있다.⁹⁾ 鄭 교수는 협성회 회보의 탄압 폐간설이 이승만 자신의 구술을 받아 쓴 徐廷柱의 「李承晚博士傳」과 Oliver의 「Syngman Rhee」가 이승만의 착오와 주관적 해석을 고증 없이 그대로 옮겨 씌으로써 잘못된 기록을 서로 인용했기 때문에 유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살펴 보았듯이 협성회 회보는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매일신문으로 일간지화되었다. 그러나 경영 미숙과 자본 부족, 발간 주체의 人和가 깨뜨려짐으로써 후일 丙紛을 겪고 폐간되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점은 매일신문 시대에 이르러 이 학생 주도 언론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해서 이상적인 언론의 모습을 갖췄던 근대 초기 신문의 계속적 발간이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오늘 우리는 이 史實을 溫故之

4) 鄭晉錫, 韓國言論史研究, 一潮閣, 1983., pp.200~201.

5) 同旨, 鄭晉錫, 위의 책.

6) 朝鮮日報社, 月刊朝鮮, 1989년 7월호, pp.272~273.

7) 협성회 회보는 1898년 3월 19일 협성회 도론회를 거쳐 동년 3월 26일자(제13호)로 일간지화를 ‘회중잡보’란에 보도하고 4월 2일자(제14호)를 마지막으로 제15호 발간일인 4월 9일부터 일간 신문인 ‘매일신문’으로 改題하였다.

8) 崔竣, 韓國新聞史(增訂版), 一潮閣, 1977, p.77(“培材 80년史”의 해당 부분도 同旨를 나타내고 있다).

9) 鄭晉錫, 앞의 책, p.202 및 pp.381~388.

10) 鄭晉錫, 앞의 책, p.382.

11) 吳榮陸, “한국 대학신문과 외국 대학신문의 비교”, 신문과 방송, Vol.171(1985.3), 한국언론연구원, 1985, pp.90~91.

新의 지혜로 삼아 대학 언론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賢明한 判斷을 해야 할 것이다.

3) 現代의 大學言論

현대 대학 언론의 존재 위상은 각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보편성보다는 개별성이 두드러진다. 신문의 경우, 미국의 대학신문은 대체로 일간지가 많고 생활 정보를 비롯한 뉴스의 보도와 국내 문제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¹¹⁾ 서독의 대학신문은 다양한 이념 집단별로 복수의 신문을 만들고 있어 신문의 이념성이 두드러진다.¹²⁾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대학신문이 민주화 과정에서 강력한 대학 언론 체제를 구축하여 언론 운동을 펼쳐온 점을 인정하지 않고 대학신문이 교수의 통제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기사의 진보성 및 통일 지향성 등을 들어 대학신문의 존재 양식에 대한 일대 개혁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자료가 허용하는 한, 보다 폭 넓게 韓·美 양국의 대학신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³⁾

첫째, 미국의 대학신문 제작은 전문가에게 맡겨 직업적으로 제작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대학생 기자들의 주도로 신문이 만들어지고 있다.

둘째, 기사의 내용면에서 미국의 대학신문은 학술 논문을 거의 게재하지 않으며 생활 정보 등 뉴스면에 중점을 두지만, 우리나라는 학술면을 강조하고 거의 每回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배포 범위가 대학촌 일대에 걸쳐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실음으로써 본격적인 일간지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지역신문(community paper)으로서도 손색이 없음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신문은 주로 발행 학교와 관련된 보도 및 해설, 나아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논설 기사와 학생 투고란, 교수 고정란, 외부 필자가 작성·기고한 논설식 수필이 주류를 이룬다.

네째, 미국의 대학신문은 대개가 有價紙인 데 반해 우리의 대학신문은 대학 당국의 재정적인

보조와 일부 인력의 지원까지 받음으로써 無價配布되고 있다.

다섯째, 미국의 대학신문은 일간지가 많고 학생 관계 서비스 업자가 광고 스폰서가 되어 시장 창출과 마케팅 믹스를 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학신문은 대개가 주간이고 대학신문에 실리는 유료 광고의 대부분이 실제로 대학과 관련을 맺지 않는 대기업 또는 대학의 자기 광고이기 때문에 대학신문의 광고 의존율은 극히 낮다.

한편, 양국 대학신문의 유사점으로는 주로 캠퍼스 뉴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논평은 국내 문제의 경우 아주 비판적인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학생들이란 현실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현재의 단점을 개선하여 사회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진보시키는 전진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신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이 필요로 하는 복수적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해 왔으며 그동안 不義한 정권이 대학의 비판적 분위기를 억압하고 진리 탐구에 정진하려는 대학신문의 자세를 왜곡하거나 정면으로 그 숨통을 죄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학생다운 정열과 지도 교수들의 현명한 지도로 오늘날까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3. 韓國 大學新聞의 理想型(Ideal-Type)

1) 韓國 大學新聞의 現在像

한국 대학언론의 본질을 탐구함에 있어 쟁점을 분명히 하고 방향성을 확실하게 짚어보기 위해 우리들의 논의는 이제 대학신문에만 국한시켰다.

우리나라 대학신문은 지금 그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대학신문 내외로부터 받고 있다. 대학신문 내에서는 지금까지 대학신문의 주간 또는 편집인으로서 학생 기자들을 지

12) 李正春, “대학언론, 무엇이 문제인가—교수좌담” 중에서, 언론과 비평, 제 2호(1989.7), p. 64.

13) 1985년도 동계 전국 대학신문 주간교수협의회, “대학신문의 새로운 사명과 전망”, 신문과 방송, Vol. 171, pp. 90~93에서 재인용.

도해 온 교수들이 획일화된 대학신문 현상을 우려하고 그 다양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때로는 더 이상 지도를 못하겠으니 학생회 기관지로 만들고 학교로부터 독립하라고 권고하기도 한다.¹⁴⁾

한편, 대학신문 기자들은 대학 언론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을 억압하는 배후 세력이 있어 대학신문을 좌경·용공으로 몰아 부치면서 민주 세력을 탄압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다운 대학 언론은 사회 변혁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인 만큼 대학 언론에 대한 기존의 인식 틀을 깨뜨려야 대학신문의 참 모습이 발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⁵⁾ 대학신문의 위상에 대한 교수와 학생들 간의 이러한 異見이 단순히 대학 언론 지도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데서 갈등의 심각성과 그 해결 방안의 모호성이 오히려 우리들의 시선을 끈다.

문교부는 지난 5월 6일 소위 '5·6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 조치는 문교부가 전국 35개 대학 총·학장 회의를 통해 대학 간행물의 운영 체제 변경 지침을 시달하면서 '앞으로 대학신문, 교지, 학회지 등의 제작·편집·판매를 완전 자율에 맡겨 권한 일체를 학생에게 넘겨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도하 각 신문에 일제히 보도되었다.¹⁶⁾ 문교부는 이러한 조치의 근거로 대학 간행물이 좌경 혁명 이론을 선전 선동하거나, 친북한 주장을 퍼는 사례가 급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처럼 '운동권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대학 언론을 대학 스스로 정비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대학 언론의 사법적 책임을 묻겠음을 경고한 것이다.

이와 때맞추어 기성 언론 기관들도 '대학신문 運動圈 선전지화—노동 해방 등 친북한 주장 많아, 휴업 선동 민중혁명론 특집도—20일부터 공안당국서 依法처리—(東亞日報, 1989. 5. 8)' 등을 제목으로 뽑아 올리면서 대학신문이 나아갈 길을 사설(같은 신문, 1989. 5. 9)로써 제시하고 나

섰다. 또 다른 신문도 문교부의 조치에 대한 심층 취재를 통해 '오늘의 대학신문—운동권의 선전매체化' 교수들 개탄—노동 운동 등 급진적 기사 많아, 주간 교수와 마찰 제작 중단도(조선일보, 1989. 5. 9)' 등을 표제로 한 記名 記事를 실었다. 한편 한국일보는 문교부의 '5·6 조치'에 따른 각 대학의 능동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교지 등 좌경 의법 처리에 各大學 대책 마련 부심—명의 변경·편집 방향 등 속의 거둠, 연세 춘추 완전자율·이대 편집권 분쟁 해결—일부大 선 "학생에 모든 책임 떠넘긴다"반발'을 표제로 삼아 대학 언론의 현실상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하였다(1989. 5. 9).

한겨레신문은 '대학간행물 법 위반맨 사법 조치—문교부, 편집·제작·판매권 학생에 일임—학교 건물 점거 농성 공권력 투입키로'를 표제로 한 사실 보도 및 '잇단 공안 관계자 회의—대학 공권력 투입 초읽기—운동권 이념 전파 수단 차단 겨냥' 등을 표제로 한 기명 해설 보도를 곁들여 대학신문에 대한 '5·6 조치'가 학생 운동 세력에 대한 해체 작업의 일환임을 지적해 준다(1989. 5. 7).

이와 같은 여타 가지 경과를 거쳐 지금 '대학신문은 좌경 논리 확산의 전초 기지'¹⁷⁾라는 특정 세력 집단의 여론적 공격과 비판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은 '대학신문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의도를 갖고—諸민주 세력과 학생 운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를 가진 언론 탄압 결 학원 탄압'¹⁸⁾이라는 대항 논리를 들고 나와 전국 대학의 공동 투쟁을 결의하기까지 했다. 바야흐로 학원 문제 주무 부처인 문교부와 전국 대학신문 기자들의 대결이 여름 방학 휴전 상태에 들어갔지만 정부, 대학 당국, 주요 언론 기관의 결집된 헤게모니에 맞선 학생 기자들의 대항 논리는 대학 외부의 선전 매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14) 李正春外, "대학언론, 무엇이 문제인가—교수좌담", 앞의 책, pp. 52~66.

15) 권오훈外, "대학언론, 무엇이 문제인가—학생좌담", 앞의 책, pp. 68~84.

16) 東亞日報社, 新東亞, 1989년 7월호, pp. 415~416(姜榮眞, 大學言論, 좌경이념의 온상인가).

17) 朝鮮日報社, 月刊朝鮮, 1989년 7월호, p. 264 소포계(石琮熙, 대학신문은 선동매체인가).

18) 앞의 책, 앞의 글, pp. 267~268.

2 학기 들어서면서부터 크게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학생들이 고립될수록 과격해지고 특정 집단 여론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국면 전환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그럴수록 대학의 주요 구성원이며 인간적 유대 관계로 얽힌 대학의 師弟關係나 敎權이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태의 진진과 심화는 대학 언론은 물론 대학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마침내 자유 민주 체제—자유와 민주가 다같이 중요한 이념적 지향이며 20 세기의 생산력과 사회적 관계가 이룩한 고귀한 사회적 체제인—를 허물게 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대학신문의 위태로운 현재상을 진단해 낸 이상 우리는 대학신문이 그 역할·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처방을 내놓아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들의 탐구가 미치지 못한 대학 언론의 새로운 위상 및 역할과 기능 문제들을 이제부터 살펴 보기로 하겠다.

2) 大學新聞의 複數的 地位와 役割

지금까지 대학 언론의 기능에 대한 대부분의 접근들은 대학신문을 포함한 모든 대학 언론이 대학 체제의 도구로 봉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각 부분의 전반적인 변혁과 새로운 사회적 균형을 위한 가치관의 변동이 극심한 민주화 시대를 당하여 대학 체제의 위상도 변경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변화의 국면에 맞추어 대학 언론의 위상도 재정립되어야 하고 역할과 기능도 재설정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사회의 민주화를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회 각 부분별 단위 조직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시급히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학 언론에 관한 연구는 이미 성립된 대학 체제의 유지·존속을 위한 기능의 탐구에만 급급하여 기성 체제의 성립 자체가 안고 있는 취약성을 무시한 체 체제

방어의 논리만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측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학 언론 기능론은 대학신문의 기능을 일반신문의 기능에 유비추리함으로써 대학의 환경 감시, 해설, 문화 전수, 오락 등을 주요한 기능으로 간추려 왔다. 그러나 대학 언론과 일반의 시민 언론이 본질적 차이를 가진 만큼 그 차이를 발견하여 독특한 대학 언론의 기능을 인정할 때, 대학 언론은 대학과 인간 자체의 발전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민주화의 과정에 있어서 대학 언론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맡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기 전에 대학신문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제작을 위해 대학 언론 관계자 또는 연구자들이 개진하였던 대학신문의 기능론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吳鎮煥 교수는 대학신문의 역할로서 ① 교육 목적의 달성, ② 학생 활동의 지침, ③ 집단 귀속 의식의 고취, ④ 對社會的 기능 등을 들었다.¹⁹⁾ 이 가운데 사회적 기능으로써 대학 사회의 의견을 사회에 노출시키는 것, 특수전문적 지식의 전달·공급 및 대학 이미지 개선의 임무 등을 손꼽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의 완수가 1969년 당시로서는 대학 당국이 대학신문의 실질적인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운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吳 교수는 1975년 전국 25개 종합대학의 대학신문 주간들로 구성된 대학신문주간협의회가 주최한 하계 세미나에서의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학신문의 기능에 대한 가설로서 ① 敎育利器論, ② 大學機構論, ③ 獨立紙論을 제시하고 가설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였다.²⁰⁾

‘연세춘추’는 그 지령 800호 기념 특집을 통해 단순 설문 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대학신문의 주된 기능은 ① 비판적 기능, ② 학문적 기능, ③ 문화매체적 기능, ④ 홍보적 기능의 순서로 집계되었다.²¹⁾

徐正宇 교수는 ① 대학 문화의 전달 기구, ② 대학 문화의 실험장, ③ 문화 풍토의 조성 기구,

19) 韓國新聞研究所, “대학신문 편집 관계자 세미나 보고”, 新聞評論, Vol.30(1969. 여름), pp.73~77.

20) 韓國新聞研究所, “전국 대학신문 주간 세미나”, 新聞評論, Vol.58(1975.9), pp.90~91.

21) 연세춘추, 1977.11.7 자, 800號, 연세대학교.

④ 문화의 창조자로서의 역할 등을 대학신문의 임무로 보고 이러한 임무의 수행을 통해 대학신문이 대학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²⁾

尹在根 교수는 대학신문 전체가 일간 신문인 문화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①보다 차원높은 문화 의식을 자극하는 것, ② 대학의 가장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는 弘報紙의 기능을 맡는 것 등을 그 역할로 꼽고 학생 기자들의 투철한 봉사 정신과 애교심 함양을 대학신문 기자의 자질 향상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²³⁾

무엇보다 우리는 대학신문의 기능이 그가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대학신문의 역사적 공적을 아는 것은 대학신문의 기능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역동성을 가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이다. 우리는 경제 개발이라는 신화 속에 政經이 密着하여 폭압적인 유신 독재로 통치하던 시대와 以前 時代에 확보한 부도덕한 기득권 위에 안주하여 인간의 타고난 自主性과 能動性을 억압하던 '5공' 시절에 대학신문이 수행해 온 역할을 긍정적으로 돌아보면서 오늘날 대학신문의 복수적 기능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신문은 대학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이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대학신문은 사회적으로 가장 발전되고 이상적인 모습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려고 애쓰는 대학의 이념을 좇아 고루한 여론의 반영이나 의도적으로 특정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를 거부했다. 대신 대학신문은 대학의 주체인 대학인들의 민주적 自治 의지를 고무하는 데 기여하고 학교 당국이 정권의 조종을 받고 있음에 저항하였다.

둘째, 대학신문은 시대를 증언하고 탐구의 궁극적 목표 가운데 하나인 확률 높은 예언을 제시해 왔다. 즉, 대학신문이 대학이 보다 큰 사회체제의 하위 구성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데 필

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대학 공동체의 보편적 공익에 부합되는 해설과 논평을 대학인에게 전하는 데 용감하였다.

셋째, 대학신문은 진리에 접근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건설적 비판을 통해 공개적인 토론 마당으로 기능해 왔다. 초기의 유치한 대학 P.R. 단계를 거쳐 대학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만큼 성숙한 대학 언론은 대학의 구성요소 중 가장 진취적인 부분으로써 대학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충고하지만 나아가 사회에 대해서도 약자의 여론을 대변하며 사회 정의의 실현에 한몫 거들어 왔다. 특히 대학신문이 강조한 강자의 도덕성은 사실상 민주적 윤리교육의 요체로써 사회적 지식의 전달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화까지 유인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두었다.

넷째, 대학신문은 대학을 그 내·외부의 여러 기능과 소통시키면서 온전히 대화의 매개체로 기능해 왔다. 대학신문은 대학이 탐구한 성과물의 출현을 畵知하여 사회와 대학을 끊임없이 계몽해 왔으며 공권력과 金權의 적나라한 지배에서 빠져나와 현대 과학 기술이 선사한 매스 미디어로서의 위력을 가장 자연스럽게 행사해 왔다. 인간 사이의 진솔한 대화는 어떤 힘보다도 강한 것이어서 그동안의 철권 통치와 폭압 속에서도 사회의 발전과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신문이 앞으로도 ①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 ② 시대를 증언하고 예언을 제시하는 기능, ③ 시비를 가리는 공개적인 토론 마당의 기능, ④ 權力과 資本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화의 매개 기능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 분위기란 바로 대학의 본질에 어긋나는 비교육적 발상으로부터 연유하는 문교 관료들의 對左翼 열등감(red complex)으로부터 대학 언론의 위상을 지키는 일과 대학신문에 대한 지도 능력의 부족을 대학신문에 대한 자금 중단 지원 및 예산과

22) 徐正宇, "대학문화의 발달과 대학신문의 역할", 新聞과 放送, Vol. 105(1979.8), 韓國新聞研究所, 1979, pp. 47~48.

23) 尹在根, "대학신문 기자와 文化意識", 新聞과 放送, Vol. 123(1981.2), 韓國新聞研究所, 1981, pp. 40~44.

편집권의 완전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왜곡 유도하는 현재의 대학신문 지도자를 기꾸로 계몽하는 일 등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상당히 쉬운 듯하면서도 대학의 본질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폭 넓은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결국 양심적인 대학인의 자기 회생에 맡겨져야 할 속제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 될 것이다.

4. 大學新聞의 指導 方向

일천한 한국 대학의 역사 속에서도 대학신문이 기성의 제도 언론에 맞서 시대의 양심을 증언하고 일부 기득권 집단의 부당한 억압과 질곡에 맞서 진실을 폭로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한편, 대학과 양심 세력간의 대화 통로로써 민주화 시대를 여는 데 크게 공헌해 온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 선배들이 숭한 탄압과 유혹을 온 몸으로 밀어내며 합법 공간을 구축해 온 대학신문이 변변히 이어온 빛나는 전통과 단절된 채 지금까지의 존재 양식을 반강제적으로 변경시키던가 아니면 숲줄이 끊길 위태로운 지경에 다달아 있다.

문교 당국은 '5·6 조치'에 대한 여론 반향이 워낙 커지자 "그러한 내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그럴 입장도 못된다—대학 간행물에 대한 지도를 추구한 것이 확대 해석돼 보도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문교 당국은 이미 대학 간행물을 수집해 기사 분석을 완료하고 주요 필진 및 기자의 집필 성향과 신상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²⁴⁾ 일부 대학 교수들도 대학 언론을 '지식 전달—정보 제공의 수단'으로 국한시켜 생각하면서 '원고 검열권의 무조건 인정'을 주장한다.²⁵⁾ 큰 문제는 이보다도 오히려 대학신문의 발행 당사자간의 불신과 오해에 있다.

대학 당국은 발행인이 총·학장이고 편집인은

주간 교수인 만큼 대학신문의 편집권을 학생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편집 자율권 인정 요구를 거절하고 대신 학생들이 발행 주체가 되는 완전 자율적인 학생 신문으로의 위상 전환을 촉구하는 형편이다.²⁶⁾ 한편 대학신문 기자들을 비롯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대학신문 제작의 권한과 책임 모두를 학생들에게 위임하여 대학 언론의 위상을 번질시키는 것은 '대학 언론의 합법 공간을 박탈하고 대학신문을 비공식적인 기구로 전락시켜 쉽게 탄압하기 위한 기만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²⁷⁾

우리는 대학 언론의 다양성을 추진하겠다는 대학 당국의 진의를 학생들이 몰라주고, 편향적 학문 풍토로부터 진실 접근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학생들의 충정을 대학 당국이 몰라주고 있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대학 언론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치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다양화를 앞세우는 것은 대학 언론의 복수적 역할과 기능 수행을 중단시키고 대학 당국이 학생 지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 또한 학생들의 사회 계몽과 지향 목표가 순수하더라도 역사 발전과 사회 진보의 일반 원칙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듯한 보도 태도는 인식과 실천의 괴리에서 오는 낭패감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해 두겠다.

우리는 결코 대학 언론을 힘이 있든, 돈이 많든, 수가 많은 간에 일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되게 할 수는 없다. 특히 인쇄 매체의 보편적 역사와 우리나라 대학신문의 특별한 전통에 비추어 기존의 대학신문을 해체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우리는 대학신문이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대학 내·외에 강렬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매체로 남기 위한 생존의 방법—어떤 의미에서는 지도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겠다.

24) 新東亞, 1989. 7월호(앞의 책), p. 417.

25) 앞의 책, p. 478.

26) "대학언론, 무엇이 문제인가—교수좌담"(언론과 비평, 1989. 7월호, pp. 52~66) 中 전체가 아닌 몇몇 주간 교수의 견해인 바, 비록 私見이라 하더라도 보직 교수가 보직과 관련하여 公表한 의견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대학 당국자의 發言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27) 月刊朝鮮, 1989년 7월호, pp. 266~267.

첫째, 대학신문에 대한 교수들의 지도는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은 넓은 의미의 직무 유기 행위이다. 원리에 있어 그러하나 현행의 지도 체제는 근본적으로 틀어 고쳐야 한다. 대학신문의 지도 교수 또는 주간은 대학의 여느 補職처럼 총·학장을 보필하고 관료주의적 위계 질서에 의한 통제를 받는 위치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 언론 활동을 지도할 수 없다.

代案은 이렇다. 학생 기자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三顧草廬하듯 모시고 대학신문의 본질을 탐구하며 그에 합당한 역할·기능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생 기자들이 지도 교수 또는 주간을 임기를 정해 청빙하면 대학 당국이 이를 승인하고 자금과 보조 인력을 지원하되, 청빙된 지도 교수 또는 주간은 학생 기자들과의 사회적 계약을 통해 편집 지도권, 예산 집행 지도권 등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일단 청빙된 지도 교수의 임기중 해축은 대학 당국이나 학생 기자단(학부든 대학원이든 정규 학생 기자로 조직된 회의 구성체)이 보다 硬性的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빙의 의결 정족수는 제적 과반수, 해축은 4분의 3으로 한다면 학생 기자들의 다수결식 공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신문 기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야 한다. 대학신문 기자들이 일반 사회 언론인처럼 전문적일 수는 없지만 사회 언론인이 전문적으로서 평생에 걸쳐 그 직업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련을 계속하고 있듯이, 비록 제한된 기간 동안 대학신문 기자로 일하는 한(full time 이든 part time 이든 일은 신성한 것이다), 그에겐 대학 언론의 사명에 대한 깊은 통찰과 윤리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 공익과 정의에 합당한 보도만이 대학 언론인의 언론 자유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대학신문의 보도 자세는 탐탁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대학에 신문방송학과를 설치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일단 신문방송학개론과 언론윤리법제 등의 기본 강좌를 개설하여 일반 학생들에게 다가올 정보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능동적으로 사는 삶과 보다 활발해질 언론 활동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언론의 부당한 사생활 간섭이나 여론 조작으로부터 善惡正邪를 가릴 줄 알게 한다. 또한 대학신문 기자들에게는 그들의 副業인 대학 언론 활동이 개인과 사회, 국가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실천적 지식을 전수받고, 때로는 토론을 통해 새로운 言論價値觀을 創案할 수도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활동은 나아가 사회의 일반 신문·방송 종사자의 자질을 장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원동력이 되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것이다.

셋째, 기능적인 문제 몇 가지를 보태겠다. ① 대학신문의 내용은 대학의 창조 정신을 발현시키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 분과 학문의 전문적인 연구는 전문지에 맡기고 대학 공동체의 公共的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만을 싣게 한다. 그러므로 개인 신변 잡담이나 가십성 기사, 기계적 균형성을 염두에 둔 편향성 기사는 배척해야 한다. ② 대학신문의 재정원은 현재처럼 대학이 지원하되 해당 대학인의 일반 독자들에게도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적 공복감을 느끼는 지방 소읍에 위치한 대학들의 신문은 곧 지역신문(community paper)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어야 지역인과 대학인이 경험을 공유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에도 대학신문이 사회를 향해 대학인의 진솔한 모습을 전할 수 있을 때 대학신문은 기성 언론에 대해 有力한 競爭紙가 될 수 있다. 결코 대학생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들의 기발한 발상과 참신한 충격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